

# 채용 시 혼인여부·출신지역 등 요구... 불공정채용 '여전'

고용부, 올해 상반기 629개소 점검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 적발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 집중확인 채용탈락자 서류 보관 사례 등 있어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직계비속의 학력과 직업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등 불공정채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직공고, 청년다수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17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뿌리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계시판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지원자 자신의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직업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A제약회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C운수업체는 지난 4월 채용과정에서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력서에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출신지역과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D 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 대해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비용 전액을 환급했다. 법 제9조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거나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채용탈락자서류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각각 법 제11조제4항, 법 제10

조 위반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식품부 “돼지열병, 경남·충남 확산 우려” 사우디에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전수

‘경북도 12개 시·군 현장점검’ 추진 방역 대한 현장 긴장감 유지 차원에서 지자체 단체장 등과 면담 계획

정부가 이달 하순 경북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태와 관련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울진과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 등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ASF의 경남쪽 남해 및 충남 등지로의 서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경북 영천시(6월15일), 안동시(7월2일), 예천군(7월6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3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경상



경북 상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철망이 설치돼 있다. /농식품부

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2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경북도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농장 및 축산시설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조치사항도 점검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검출되고 경남과 충남 등으로 남하 및 서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사우디 관계자, 화학물질안전원 방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중수센터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방법 등을 전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우디의 국립환경중수센터 관계자들은 1박2일 일정으로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송읍에 위치한 화학물질안전원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지속적

인 교류 및 협력 도모를 위해 마련했다.

방문을 통해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조직 체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화학안전의 전반적인 제도를 배우고자 이틀간 우리나라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방문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관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쌀 1.5만톤 지원

농식품부와 UN WFP 협력

한국산 쌀 1만5000톤(t)이 방글라데시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소수민족 난민 100만 명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전북 군산항을 출발한 원조 쌀이 현지에 도착했다며, 이달 16일 방글라데시 콕사바자르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전달 행사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로힝야족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그간 분배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소 결핍이 심화했다. 이번 재가공 쌀 섭취를 통해 영양실조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WFP는 이 쌀을 방글라데시 콕사바자르 및 바산 지역의 로힝야 난민 약 100만 명에게 한 달 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전달식에 참석해 원조식량이 난민에게 지원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현지 반응을 살폈다. 그는 난민캠프를 찾아 수혜자들과 면담한 후 “이 지역에서 주로 먹는 장립종이 아닌 한국 쌀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잘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5→10만 톤)로 늘렸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해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에 신



방글라데시에 지원된 한국산 쌀. /농식품부

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중동의 예멘이 대상국이다.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을 실시했다. 지난 4월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만5000톤의 쌀이 5월1일 출항해 5월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다. 나머지 8만5000톤도 목포, 울산, 부산항을 출발해 이달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기대, 기술·공학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30개 온라인 교육과정 전액 무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21일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학

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과정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4일~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선발 결과는 8월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9월~12월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엔디에스, 용역 위탁 서면 미발급 ‘적발’

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

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 ~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중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 종료 후 발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